

☆ 정조의 업적 - 조선 후기의 르네상스를 이룸

- 왕권 강화
 - 장용영: 왕의 수호 부대
 - 규장각 : 왕실의 국립 도서관 / 인재 양성
 - 탕평책 계승: 인재를 파벌에 상관없이 골고루 등용하려 노력
- 노비 면천: 정조가 계획을 하고 아들인 순조 때 링컨의 노예 해방보다 무려 60 여년이 앞선 시기에 공노비 66,000 여 명 해방
- 수원화성 축조: 이상적인 도시 건설 계획
- 금난전권 폐지: 일부 상인에게 주었던 권리를 없애고 관리와 담합할 수 없게 한 제도
- 격쟁: 백성이 임금님 행차길에 직접 징이나 팽과리를 울려 임금에게 자기의 억울한 일을 알리고 도움을 구한 제도
- 대전통편(법전) 발간: 조선 건국 이래 변화되어온 제도를 정리하여 300 년만에 만들어진 새로운 통일 법전



수원화성



격쟁



대전통편

☆ 정조의 인재등용 - 조선 후기의 전성기를 이룰 수 있던 배경

- 정약용
 - 수원화성을 설계하고 거중기를 포함한 각종 건축 도구를 만들
 - 조선 후기 대표적 실학자
 - 법학, 철학 통치학, 과학에까지 능통한 조선 역사적 천재; 조선의 레오나르도 다 빈치
 - 3,000 수에 가까운 시와 500 여 권의 책을 씀; < 목민심서 >



- 박지원

- 조선 후기의 문신, 실학자, 사상가, 외교관, 소설가
- 조선 후기 실학의 한 유파인 북학파의 시조
- 저서 <열하일기>, <양반전>, <허생전>

- 박제가

- 정치가, 외교관, 통역관 실학자
- 청나라의 앞선 문물과 서양의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임
- 상행위와 무역을 적극 장려

※ 실학

- 조선시대의 성리학이 당시 조선 사회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. 그래서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학문인 실학이 17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에 퍼져나갔습니다.

※ 열하일기

- 박지원이 청나라 북경을 방문하고 돌아와 청나라의 문물을 경험하고 온 내용을 적은 것입니다. 그런데 단순히 보고 들은 것만 적은 것이 아니라 문물에 대한 평가까지 하면서 쓴 책입니다.